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 CHANNEL

2022 JAN  
Vol.228

**희망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삼성 KPMG

## COVER STORY

찬란하게 빛날 2022!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Happy New Year!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 빈센트 반 고흐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던  
2021년 한 해가 저물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 새해가 떠오른 만큼 새 희망을 품고,  
우리 삶의 일상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http://home.kpmg/kr/ko/home.html)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 CONTENTS

JANUARY 2022 Vol.228

삼성KPMG 뉴스레터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 행복한 일터

### Hello 2022! 22

어흥! 그래 결심했어!  
임인년, 호랑이띠 삼정인이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은?

### Trusted Advisor 24

신입 컨설턴트 입사를 환영합니다!  
새내기 컨설턴트 4인방을 만나다

### 삼성인터뷰 26

FY21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차세대 여성 리더로 가는 변화의 시작!

### 이동규의 두줄칼럼 28

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 心 Care 30

당신은 벼랑 끝까지 미루는 사람?  
더 이상 미루지 않을 나를 위해!

### Samjong News 32

2022년 시무식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  
'Vision 2025' 향한 도전 의지 다져 외

## 건강한 성장

### 04 CEO 신년사

Vision 2025! - No.1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시다!

### 06 운영위원 신년사

운영위원이 전하는 임인년(壬寅年) 신년사

### 08 Emerging Trends

2022년 산업별 변화와 전망은?

### 12 Team Story

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최강 Hero!  
Second Line of Defense팀

### 14 Client+

국내 유일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전문 기업, (주)오로스테크놀로지

### 16 Market Reader

수소경제 밸류체인으로 본 비즈니스 기회는?

### 18 Expert's Advice

M&A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그것은? '세금'

### 19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12p



22p



26p



## Vision 2025! - No.1을 향한 도전을 함께 합시다!

壬寅年

2022

###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임인년(壬寅年)으로 임(壬)은 검은색, 인(寅)은 호랑이를 의미하여, '흑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산중왕(山中王)으로 불리는 호랑이는 용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동물로, 빼어난 지혜와 늠름한 기품을 지녔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을 가득 받아 긍정적이고 힘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2021년은 'Vision 2020'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Vision 2025'의 새로운 희망이 함께 한 해였습니다.

도전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하나 되어 지난 5년간 도전을 함께 했기에 재무 목표의 초과 달성뿐만 아니라 인재가 존중받는 행복한 일터를 이루며 업계를 울

바르게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4월 우리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Vision 2025: Ambitious Future',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며 희망찬 도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품질로 건강한 성장을 이루고, 모든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는 행복한 일터를 가꾸며,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신뢰받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고객의 니즈(Needs)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업계를 선도해온 결과 모든 Function이 양적, 질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며, **5년 연속 KPMG Global Board Country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MZ 세대가 가장 많이 선택한 회계법인으로 **7년 연속 가**



**장 많은 신입 회계사를 가족으로 맞이**하며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였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최고의 전문가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연봉 인상’과 ‘중간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행복한 일터 협의회**’ 운영, ‘**자유로운 근무복장 제도**’ 시행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구성원들의 심신 건강 밸런스를 위한 ‘心 Care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대면 시대 다양한 온택트 교육 프로그램으로 ‘Everyone A Leader’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감사플랫폼 ‘**KPMG Clara workflow**’ 도입으로 감사 효율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세무조정 및 지방세 신고 지원 솔루션 ‘**K-Tax**’를 론칭하였습니다. 기업의 임직원과 사외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도 신설했습니다. 이외에도 업계 최고의 ESG 자문 경험과 노하우로 **ESG 시장을 선도**해왔으며, 마이데이터, RPA,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등 **기업의 디지털 변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지난해 지속된 팬데믹 위기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은 삼정KPMG 가족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 덕분입니다. 긍정의 힘으로 2021년 빛나는 한 해를 만들어 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삼정KPMG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비대면 비즈니스의 새로운 기회가 다양한 산업에서 창출되고 메타버스와 수소 경제 등 새로운 키워드가 부상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넷제로(Net-zero)를 필두로 한 ESG 경영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 경영전

략으로 자리를 굳혀 나갈 것입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전략을 고도화하고 대내외적 변수에 따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만이 성장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삼정KPMG는 팬데믹으로 가속화된 변화 속에서 시장의 흐름을 빠르게 읽고 기업들에게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자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최신 디지털 기술 도입과 전문가 육성을 통해 **디지털 리더십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통합 ESG 자문**을 통해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가적 윤리의식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더욱 엄격해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변화에 부응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삼정KPMG는 무엇보다 **인재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호선망세(好善忘勢)의 마음가짐으로 인재를 존중**하고 **육성**할 것입니다. 2022년에는 최고의 업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GFC 8층, 28층에 이어 **GFC의 모든 업무 공간을 스마트 오피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업무 환경 개선으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향한 도전 정신으로 **‘Impossible’을 ‘I’m Possible’로 바꾸어 가고자 합니다.**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최고의 자신감과 도전정신으로 **‘Vision 2025! - No.1’을 향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길로** 나아갑시다.

2022년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삼정KPMG 회장 김교태**

# 운영위원이 전하는 임인년(壬寅年) 신년사

## 現法樂住

헌법낙주\*



Audit 한은섭 대표

###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늘 행복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2021년 역시, 계속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감사품질과 성장을 모두 균형 있게 달성한 한 해였습니다.

물론, 돌이켜 보면, 한 해의 아쉬움도 금할 수 없지만, 이러한 아쉬움이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헌자(賢者)는 지나간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으며,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친 우리 법인의 구성원 모두가 긍정적인 사고로 자신을 사랑하며, 겸손의 자세로 행복을 느끼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현재 직면한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 同氣相求

동기상구\*



TAX 윤학섭 대표

### 全 구성원 자긍심 가질 No.1 Service Provider로!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도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정KPMG는 'Vision 2020'을 달성하고 새로운 'Vision 2025'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세무는 무엇보다도 구성원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No.1 Service Provider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同聲相應 同氣相求(동성상응 동기상구)란 격언이 있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시너지를 합치면 우리가 못 이룰 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하고 있는 세무 구성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새해 맞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기질과 뜻이 같은 사람끼리는 서로 찾아 모임

## 日就月將

일취월장\*



Deal Advisory 구승희 대표

###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2022년이 되기를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2021년 M&A 시장은 남다른 한 해였습니다. 생존을 위한 매각, 선택과 집중을 위한 사업재편, 플랫폼 비즈니스의 손바뀜, ESG 등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가 주요 SI, FI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202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5년간 우리 Deal Advisory가 꾸준히 성장해 왔듯이, 2022년에도 시장과 고객을 선도하며, 지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Deal Advisory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 함께해 주신 삼정KPMG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날마다 달마다 성장하고 발전한다

새해를 맞아 삼정KPMG 운영위원들이 2022년에 이뤄갈 새 목표와 다짐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Vision 2020’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Vision 2025’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서는  
삼정KPMG의 2022년을 어떻게 그려갈지 운영위원 신년 메시지를 통해 살펴본다.

## 所向無前

소향무전\*



Consulting(CS) 정대길 대표

### 힘찬 발걸음으로 더 큰 성장을 위하여

삼정KPMG 가족 여러분, 임인년 검은 호랑이띠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면에서 생소한 환경의 등장과 변화 속에 무엇보다도 미래의 방향성과 예측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어려움과 불확실한 환경을 견뎌내며 극복한 우리 삼정KPMG 가족 여러분께 힘찬 격려와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우리의 ‘Vision 2025’ 달성을 위한 출발점으로 소향무전(所向無前)의 정신으로 힘차고 담대하게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전진합니다. 덕내에 건강과 행복 가득한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강한 의지나 행동 앞에 장애물이나 적이 없다

## 携手同行

휴수동행\*



Q&RM 양승열 대표

###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잘 이뤄낼 것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삼정KPMG는 열정과 긍정의 마인드로 ‘Vision 2020’을 달성하고 ‘Vision 2025’를 향한 원대한 꿈과 비전으로 봉새를 타고 만 리를 힘차게 날아갈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鵬程萬里).

새해 임인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삼정KPMG 임직원 모두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며, 목표한 일을 함께 성취하고, 기쁨도 함께 나누며,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携手同行). 삼정KPMG 가족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서로 손잡고 함께 나아가자

## 相辅相成

상보상성\*



COO 이호준 부대표

### 서로 합심하여 꿈을 이뤄가는 2022년이 되길

지난 2021년, 우리는 ‘Vision 2020’이라는 목표를 성취하며, 우리가 함께한다면 높아만 보이던 목표도 이를 수 있다는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정성을 기울이며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도전해 간다면 ‘Vision 2025’의 새로운 목표도 이루어 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Vision 2025’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삼정KPMG,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소원하는 바 성취하시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서로 도와서 일이 잘되어 나가도록 하다



## 2022년 산업별 변화와 전망은?

2022년 코로나와의 공존 시기에는 대내외적 변수에 대한 리스크 관리 역량은 물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빠르게 포착해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한 기업이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호에서는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산업별 전망을 살펴본다.

### ○ 반도체, 에너지,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2022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

2022년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반도체, 에너지·유틸리티, 게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등은 우호적 영업 환경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8.8%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파운드리 생산 능력 확대로 시스템 반도체 품귀 현상은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 과잉폭이 확대되며 성장률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경제회복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수요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기후 합의로 신재생에너지의 수요 증가세는 뚜렷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측됐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2022년 국내 주요 산업 전망' 보고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

게임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2022년은 메타버스와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비즈니스적 활용이 본격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게임 기업은 NFT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되, 게임이 주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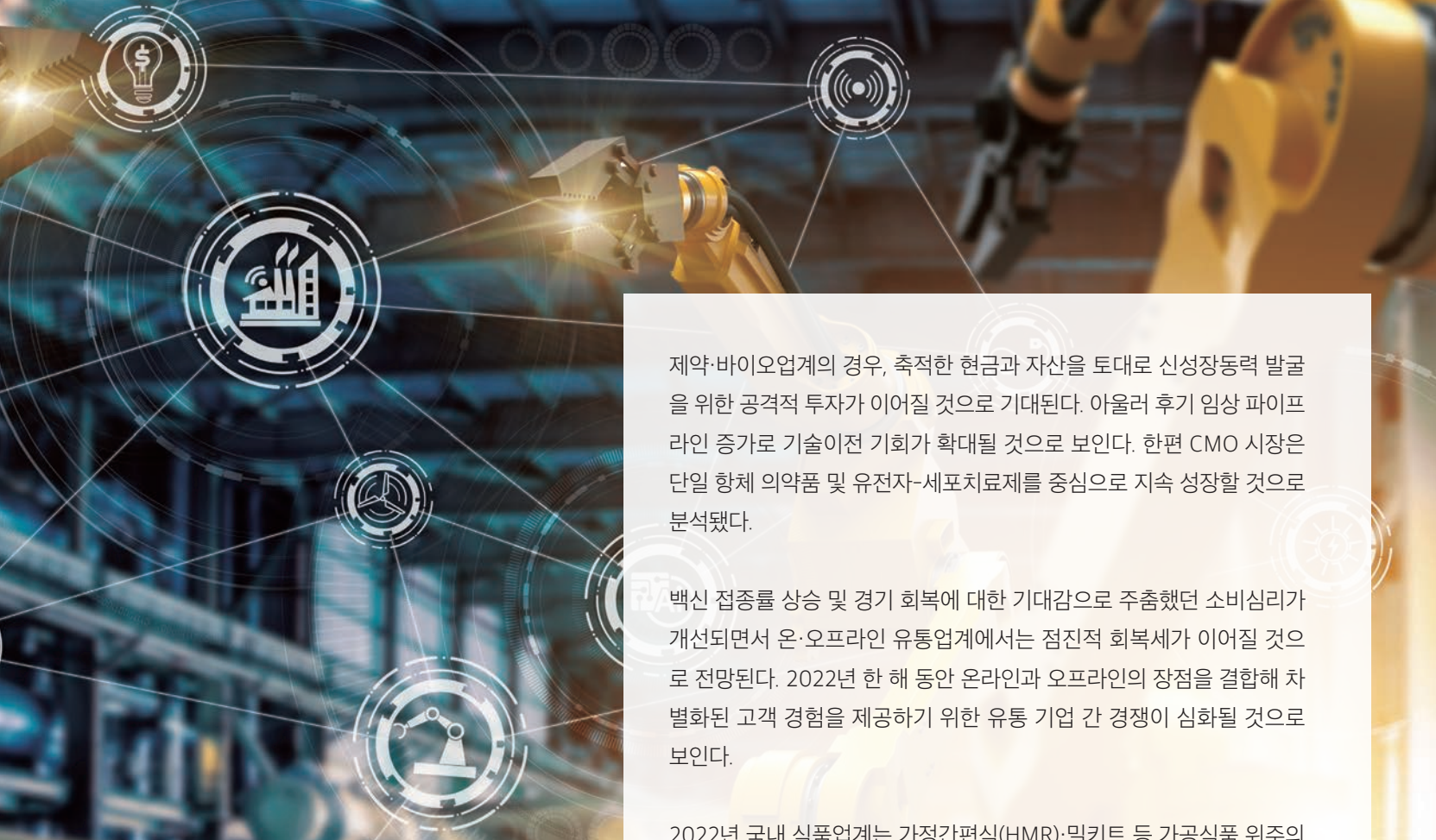
드라마·음악 등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이 이어지면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은 2022년에도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산업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로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OTT 기업은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를 위해 본격적으로 역량 강화에 나설 시점이다.

## ○ 제약·바이오 외 14개 섹터 '일부 긍정' 전망

현대포산업과 자동차, 철강, 정유·화학, 제약·바이오, 건설, 항공, 관광, 유통, 식음료, 외식, 패션, 화장품, 은행, 생명보험산업은 '일부 긍정적'으로 전망된다.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프리미엄 시장에서 폴더블폰이 점유하는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됐다.

2022년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건조한 대기 수요 및 생산의 단계적 정상화로 제한적 성장이 전망된다. 국내 정유산업은 운송용 정유 제품을 중심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관측됐고, 국내 화학산업은 전방산업 호조로 수요는 증가하지만, 수요구조 변화로 인해 제품별 실적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설산업은 자재 가격 급등, 건설투자 부진 등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토목 및 주거용 건설 수주 확대로 성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SOC 프로젝트 확대와 도심 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건설산업 성장을 이끌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바이오업계의 경우, 축적한 현금과 자산을 토대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공격적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후기 임상 파이프라인 증가로 기술이전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MO 시장은 단일 항체 의약품 및 유전자·세포치료제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분석됐다.

백신 접종률 상승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춤했던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는 점진적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한 해 동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결합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유통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내 식품업계는 가정간편식(HMR)·밀키트 등 가공식품 위주의 안정적 판매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국제 곡물가 상승 지속으로 국내 식품 기업에 원가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 2022년 산업 전망 기상도





산업	2022년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반도체	긍정적 ☀️	제약·바이오	일부 긍정적 ☁️	외식	일부 긍정적 ☁️
디스플레이	일부 부정적 ☁️	건설	일부 긍정적 ☁️	패션	일부 긍정적 ☁️
휴대폰	일부 긍정적 ☁️	항공	일부 긍정적 ☁️	화장품	일부 긍정적 ☁️
자동차	일부 긍정적 ☁️	관광	일부 긍정적 ☁️	은행	일부 긍정적 ☁️
철강	일부 긍정적 ☁️	게임	긍정적 ☀️	증권	일부 부정적 ☁️
조선·해운	일부 부정적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긍정적 ☀️	카드	일부 부정적 ☁️
에너지·유틸리티	긍정적 ☀️	유통	일부 긍정적 ☁️	생명보험	일부 긍정적 ☁️
정유·화학	일부 긍정적 ☁️	식음료	일부 긍정적 ☁️	손해보험	일부 부정적 ☁️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2년 산업별 전망에 따른 기업 대응 전략

☀ 『긍정』 전망 산업

	2022년 전망	대응 전략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미세공정 기술력 고도화 및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지속적 R&amp;D·투자로 국내 기업 입지 강화 전망</li> <li>디지털 전환 및 비대면 비즈니스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요 증대 지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적 반도체 수급 불안정 이슈가 확산되며 반도체 자급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 간 전략 공조 필수</li> <li>반도체 소재·부품 국산화 향상 및 반도체 전후방 공급망 고도화</li> </ul>
 에너지·유틸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경기의 점진적 회복으로 국내 에너지 수요는 증가할 전망</li> <li>특히,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수요 증가세 뚜렷하게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유가 및 에너지 가격 리스크 헤지(Hedge) 전략 수립</li> <li>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린플레이션(Greenflation) 대비</li> </ul>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셜과 게이밍 기능이 결합된 메타버스 서비스가 확산될 전망</li> <li>NFT는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며 돈을 벌 수 있는 P2E (Play to Earn) 트렌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로 자리매김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타버스와 NFT를 선점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되, 게임이 주는 본질적인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유의 필요</li> <li>국내에서 NFT 활용 게임이 규제상 불리한 바, 규제적 측면 고려</li> </ul>
 미디어·엔터테인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OTT 기업 간 콘텐츠 경쟁이 지속되면서, 미디어·엔터테인먼트업계의 우호적 업황 예상</li> <li>국내 웹툰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확장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li> <li>음악업계의 팬덤 플랫폼에 커머스를 접목해 수익 사업 확장 전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 OTT 플랫폼 기업의 국내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점에, 국내 OTT 기업은 콘텐츠 차별화를 위해 직접 투자와 M&amp;A, 전략적 제휴, 공동제작 등 다양한 수단 고려</li> <li>OTT, 웹툰 등의 플랫폼을 발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li> </ul>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일부 부정’ 전망 디스플레이, 조선·해운 등 5개 산업

‘일부 부정’으로 관측된 산업은 디스플레이, 조선·해운, 증권, 카드, 손해보험 등 5개 산업이다. 디스플레이산업은 2022년 코로나와의 공존 시대로 진입하면서 디스플레이 시장은 다시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었다. OLED 시장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OLED의 성장이 LCD 시장의 낙폭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산업은 글로벌 발주량 감소로 전반적인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해운산업은 물류 혼란 수습, 중국 조강 생산량 제한, 오미크론 확산 등의 영향을 받아 주요 화물 물동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1년 최고 실적을 기록한 증권은 주식거래 둔화로 위탁매매 부문 수익 위축이 예상되고, 카드는 가계 대출 규제 강화,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인해 영업 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손해보험은 경쟁 심화 및 이동량 증가 등에 따른 손해율 상승이 보험영업 수익 둔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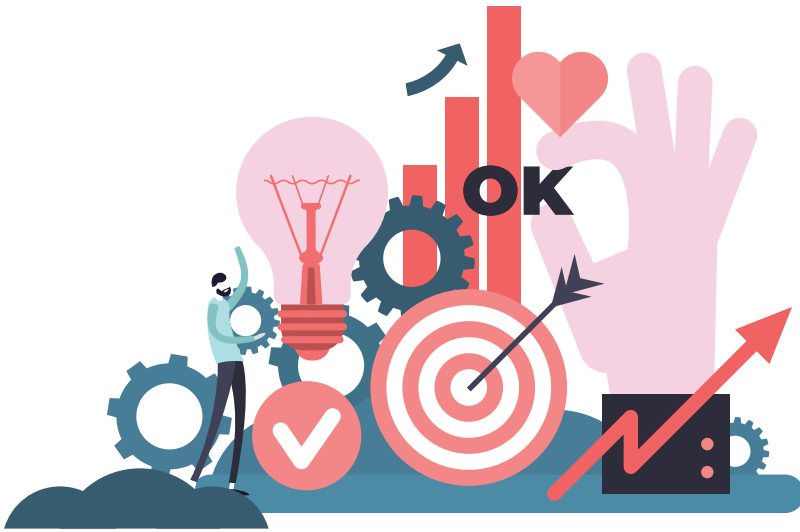
2022년에도 국내 주요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 및 원자재 가격 변동, 금리 인상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및 ESG가 부상하면서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성장 여력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산업 방향성을 정확하게 꿰뚫고, 기업 경영 혼란의 시기를 헤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산업적 환경 변화에 맞춰 경영 전략을 구체화하고, 중장기적 비즈니스 플랜 수립을 통해 성장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데 힘써야 한다.

CONTACT US

경제연구원 김수경 수석연구원  
Tel. 02-2112-3973  
E-mail. sookyoungkim@kr.kpmg.com



## 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최강 Hero! Second Line of Defense팀

삼성KPMG는 지난 2019년에 품질관리실 내 품질관리 코칭팀, Second Line of Defense팀을 출범하며, 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감사팀과 품질관리실 간의 소통 창구이자, 감사 업무 관련 점검 및 코칭 등을 통해 업계 최고의 감사 품질을 선도해가는 삼성KPMG Second Line of Defense팀을 만나본다.

- 경험과 노하우 쌓은 베테랑 전문가**  
**시장 변화에 적시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해**

자본시장의 발달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표준감사 시간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로 대표되는 신외감법의 시행, 그리고 감사품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또한, 복잡한 경영 환경과 빠르게 변화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춘 선제 대응은 물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 등이 회계법인의 선두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삼성KPMG는 외부회계감사 시장 변화에 효과적이고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실 내 품질관

리 코칭팀, Second Line of Defense팀(이하 2LD팀)을 운영하고 있다. 2019년 3월에 출범한 이 팀은 금융업, 소비와 유통, 건설업 및 중공업, 통신, 게임 및 제약 산업 등의 산업별 감사 경험이 축적된 감사 전문가, IFRS 회계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을 쌓아온 회계사들이 품질관리실에 파견돼 구성된 팀으로, 현업 감사팀의 니즈(Needs)에 맞춘 회계, 감사 등 다양한 분야의 코칭을 제공함으로써 감사품질 관리 및 제고를 위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2LD팀은 현업 감사팀이 디자인한 감사 접근 방법론, 중점감사 분야에 대해 수립된 감사 절차, 감사 문서화된 내용 등을 검토하고 토론하며,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이로써 감사 계획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감사 전반에 걸친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처음으로 In-Charge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사, 신입 회계사, 경력직 입사자 등 도움이 필요한 전문직들을 위해 직급별 수행 업무에 맞춤형 감사실무 교육, 개인별 코칭을 통해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도록 이끌고 있다.

이와 함께 KPMG Global의 내부품질관리, 품질관리실의 감사보고서 발행 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되는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사품질 관리를 위한 가이드נס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사례조서를 개발하고, 중요한 감사분야에 대한 감사 절차 가이드נס를 제공해 실무에 적용하도록 코칭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실의 가이드נס와 방침을 감사팀에 전파하고, 현업 감사팀의 이슈 사항 및 의견을 품질관리실에 전하는 등 품질관리실과 감사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사보고서 발행 전에 감사팀이 수행한 감사업무의 내용과 감사문서를 리뷰하고, 평가함으로써 Risk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사품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Second Line of Defense팀 주요 서비스



### Audit Coaching

- 감사 계획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현업 감사팀이 디자인한 감사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토론을 통한 개선사항 제안
- 직급별 감사실무 교육 및 개인별 코칭
- 회계 및 감사 전반에 걸친 현업 감사팀의 비공식 질의 대응

### 감사 절차 가이드스 및 사례 조서 개발

- 품질관리실 사전 이슈 점검 항목, KPMG Global 품질관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사례 조서 개발
- 주요 Topic 별 Audit Program Guidance 개발

### Monitoring

- 감사보고서 발행 전 감사 수행 내용 리뷰 및 평가

##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

최근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가장 주목받는 것은 무엇보다도 적시성이다. 감사업무 종료 후 사후적인 모니터링으로 뒤늦게 중요 이슈를 발견할 경우, 업무 진행이 비효율적이며 해당 이슈를 해결할 시간 확보가 어려워 감사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2LD팀은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을 토대로 감사고객 및 감사팀 소속 회계사들의 상황에 맞는 적시성 있는 코칭을 제공하고, 최근 산업의 회계이슈 및 개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감사 절차 가이드스 및 표준화된 실무 사례 조서를 개발, 제공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감사팀과 품질관리실 사이에 교두보 역할을 함으로써, 소통을 바탕으로 협업 시너지를 창출하며, 삼정KPMG 감사가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Second Line of Defense팀’을 소개한다면?

**박은숙 상무 (팀 리더)**  
eunsukpark@kr.kpmg.com



다양한 산업의 감사본부에서 파견되어 구성된 우리 팀원들은 감사 경험 및 산업의 전문지식을 모두 갖춘 인재들입니다. 따라서, 감사이론을 감사 현장의 실무에 맞게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코칭이 가능하며, 감사 현장의 다양한 감사이슈를 파악하여 품질관리실의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 실무를 리드할 수 있는 감사 절차 가이드스 및 사례 조서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지현수 Director**  
hji@kr.kpmg.com



우리 팀은 품질관리실 파견 전에 소속되었던 산업본부 감사 업무에 대한 코칭을 진행합니다. 담당 감사본부에 대한 사전이해 및 Relationship을 활용한 소통을 통해 각 감사본부의 상황 및 Needs에 맞도록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팀 운영방식이 연중 상시 감사체계에 맞는 적시성 있고 효율적인 코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팀원들 및 저에게도 감사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보람과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김진영 Director**  
jkim21@kr.kpm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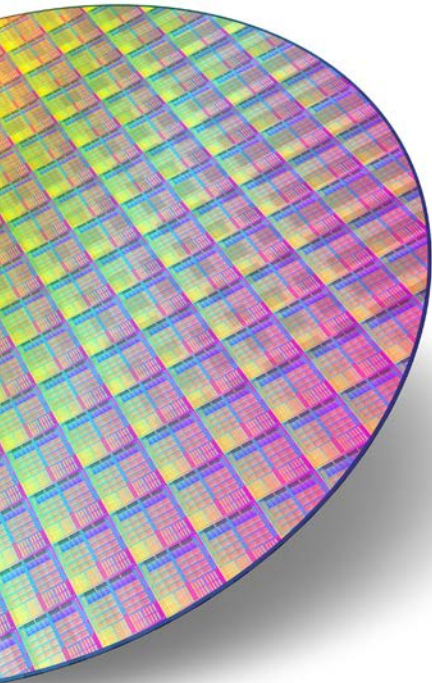
우리 팀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팀 구성원 각각이 가진 전문성을 모아 감사 품질을 위한 Best Solution을 도출하고, 감사본부에 실질적이며 제한 없는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 국내 유일 오버레이 계측 장비 전문 기업, (주)오로스테크놀로지

(주)오로스테크놀로지는 2009년 설립되어 반도체 전 공정 분야의 계측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11년 국내 최초로 오버레이 계측장비 양산에 성공했다. 이후 High Performance AF System 등 다수의 핵심 기술들을 꾸준히 개발해오고 있다. 이러한 선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확보하고, 소부장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며 계측장비 분야에서 인정받았다.



## ○ 국내 유일 오버레이 계측장비 업체, 선진 기술력 인정받아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전 공정 계측장비 전문 업체로서 해외업체가 장악하고 있는 오버레이 계측 장비 부분에서 유일하게 국산화 및 양산에 성공한 장비 기업이다. 오버레이 계측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표면에 여러 회로패턴 적층 시 회로 패턴 간의 수직방향 정렬도를 제어하는 장비로, 반도체 제조 공정이 점차 미세화되면서 반도체 정밀도는 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됐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2011년 국내 최초로 12인치 오버레이 계측장비의 자체 개발하며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최근 5세대 장비까지 개발하는 등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점차 높여가고 있다. 또한, 소부장 강소기업 100 선정, 세계일류상품 인증, 국무총리상수상 등 정부 인증을 받은 기술력을 갖췄으며 6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 ○ 코스닥 상장 이후 성장 가속 페달 밟아

오로스테크놀로지는 지난 2021년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으며, 상장 이후 성장의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액 341억 원, 영업이익 95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4%와 62% 증가한 수준으로 2020년의 연간 실적을 초과 달성한 규모다.

이러한 성장 견인에 바탕에는 고객이 필요로 한 시점에 최신 장비를 납품하여 제품 공정에 기여했다는 점이 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OL-900n 12인치 5세대 오버레이 장비를 2020년 말 양산 개시 후, 고객사의 신규 메모리 FAB에 공급했다. 이 장비는 EUV FAB에도 공급됐으며 경쟁사 장비 대비 향상된 성능을 발휘해 양산 적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진행한 시스템반도체 개발용 제조 플랫폼 구축사업에도 국내 최초 8인치 오버레이 계측장비인 'Overlay System OL-100n(이하 OL-100n)'를 공급했다. 오로스테크놀로지의 OL-100n은 6인치, 8인치 오버레이 측정 장비로, 레거시 프로세스 수요 증가에 대비해 12인치 측

1. OL-900n
2. 2019 제12회 반도체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3. 2021 코스닥 상장 기념 사진
4. 2017.03 SK하이닉스 기술혁신기업 선정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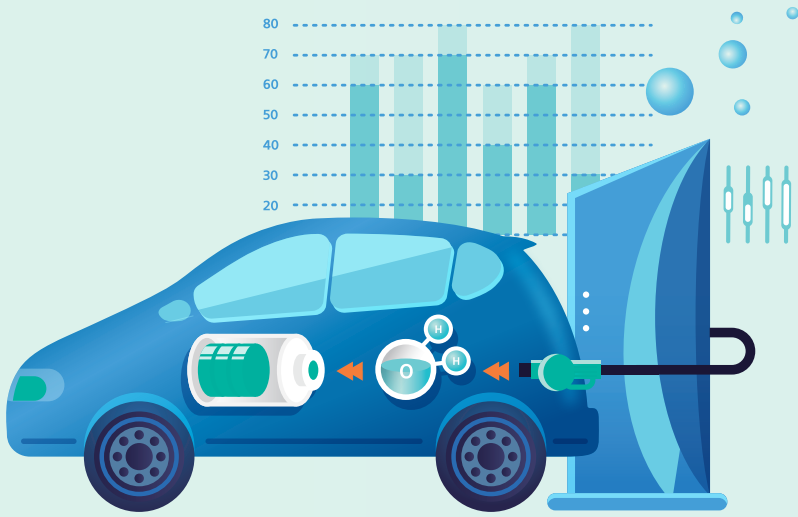
4

정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개발한 장비이다. 6인치와 8인치 웨이퍼 핸들링이 모두 가능하며, 해외 경쟁사 기능 대비 업그레이드된 오버레이 성능을 제공한다. 빠른 측정 속도와 사용 편리성을 갖췄으며 동일 장비로 오버레이와 CD 계측까지 가능해 다양한 테스트 결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 **고객 및 제품 다변화로 지속성장 이뤄갈 것**

오로스테크놀로지는 고객 다변화의 일환으로 세계 시장 확대 거점 확보를 위해 중화 CS 오피스를 중화법인으로 확대시켰고, 실리콘밸리에 미국법인을 설립했다. 또한, 오로스테크놀로지의 OL-100n 장비는 기존의 오버레이 시장을 포함해 급성장하는 화합물 반도체에서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웨이퍼 평가와 투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OL-100n 장비는 대만과 한국의 제조업체에서 양산에 적용 중이며, 일본의 자동차 센서향 반도체 FAB의 평가에서도 우수 결과를 이끌어, 글로벌 고객사 확대와 장비의 다변화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오로스테크놀로지는 2021년 말 동탄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신공장에 입주하며 제품의 다변화를 통한 사업 확장에 나서고 있다. 신공장은 약 200평 규모의 클린룸이 구축된 곳으로 초정밀 박막(Thin Film) 계측 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 박막 계측 장비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웨이퍼 위에 증착된 박막의 두께가 균일한지 측정하는 장비로, 제품군 다양화의 일환으로 신규 장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박막 계측 장비의 경우 식각, 증착, 평탄화 등 다양한 공정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망한 시장으로 꼽힌다. 2022년 말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해 미래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 수소경제 밸류체인으로 본 비즈니스 기회는?

바야흐로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에너지 전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수소가 에너지원으로서 주목받은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은 아니지만, 각국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인해 탄소를 대체할 수단으로 요즘 더욱 각광받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수소경제의 의미와 수소경제 밸류체인, 그리고 수소경제 밸류체인에서 부각되는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살펴본다.

### ○ 수소경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제정한 수소법 제2조에 따르면, 수소경제란 수소를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가 국가경제, 사회전반, 국민생활 등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경제성장과 친환경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경제로 정의된다. 그렇다면 전 세계는 왜 수소경제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바뀔 때마다 산업적 전환이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산업적 전환의 시기마다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산업이 존재해왔으며 이는 탄

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 바뀌는 이 시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수소경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수소경제 시대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 수소경제 밸류체인은 5단계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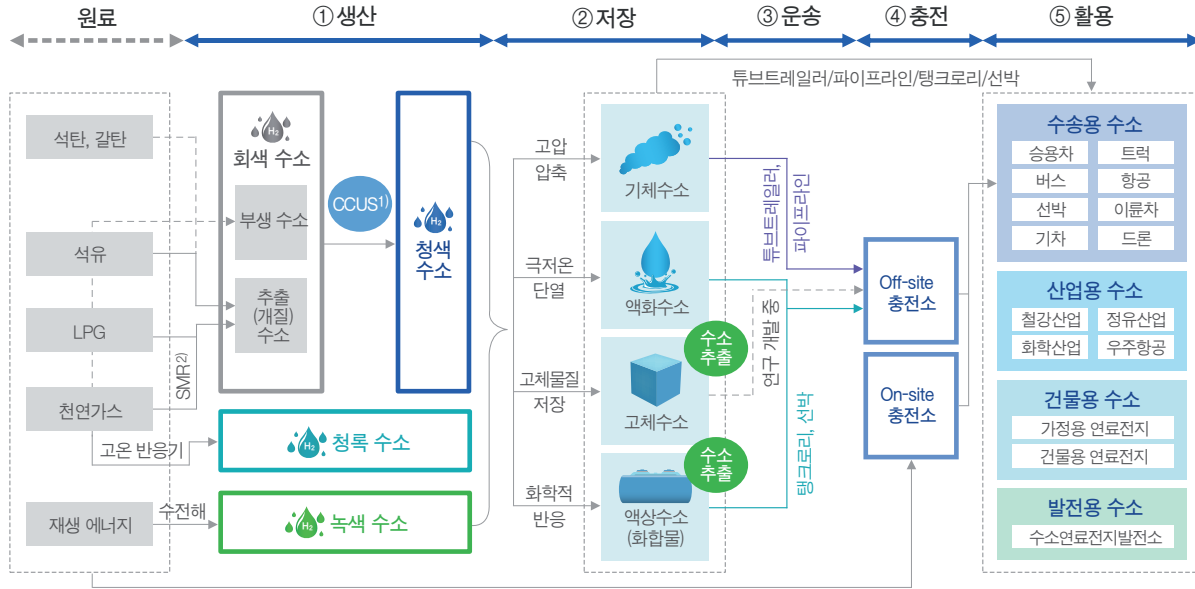
수소경제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은 무엇일지 알기 위해서 수소경제 밸류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소경제 밸류체인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수소법에 의하면 수소경제 밸류체인은 수소생산, 저장, 운송, 충전, 활용의 총 5단계로 구성된다. 회색수소부터 녹색수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원료와 방식을 통해 수소를 생산하고, 생산된 수소를 적합한 용기에 저장 후 운송함으로써 수소 충전소나 활용처에서 최종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수소경제 밸류체인 단계별로 수소경제 시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화두가 도출된다. 그리고 이 핵심 화두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비즈니스 기회들이 부각되고 있다.

### ○ 수소생산에서 활용까지, 수소경제에서 찾는 비즈니스 기회

생산 단계에서 주요 이슈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청정 수소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는가’이다. 따라서 청색수소(수소 생산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 저장한 수소)와 녹색수소(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한 수소) 시장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 국가와 기업은 청색수소와 녹색수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저장 단계에서는 ‘대용량 수소를 저장하기 위한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며 이에 따라 액화수소 시장도 주목받고 있다. 각 국가와 기업은 액화수소 플랜트를 설립하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운송 단계에서는 ‘대용량 수소를 운송하기 위한 방안’에 주목하고 있으며 고압 기체를



## 수소경제 밸류체인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1: CCUS는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장치(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Note 2: SMR은 수증기 메탄 개질(Steam Methane Reforming)

운송할 수 있는 수소 튜브트레일러 시장이 떠오르고 있다. 충전 단계에서의 중점 고려 사항은 ‘수소 충전소 확충에 대한 국가적 목표와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이를 위해 고정식 충전소뿐 아니라 이동식 수소 충전소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수소활용 분야 내 부각되는 이슈는 ‘향후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영향력이 있는 시장에서 각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수소 상용차 시장, 수소 연료 추진선 시장, 수소환원제철시장, 고체산화물형 연료전지(SOFC)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수소경제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은 곧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뜻이다.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

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이 포착되고 있고, 각 국가 및 기업들은 이러한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 역시 산업적 전환의 시기를 발판 삼아, 글로벌 수소경제 시장을 선점하고 선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수소생산부터 활용까지, 수소경제에서 찾는 기회’  
Youtube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에너지산업리더, 제조산업2본부장  
황재남 부대표**

Tel. 02-2112-7609  
E-mail. jaenamhwang@kr.kpmg.com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el. 02-2112-7095  
E-mail. nkim15@kr.kpmg.com

# M&A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그것은? ‘세금’

지난해 국내 M&A 거래금액이 47조 원을 넘어섰다.  
M&A가 사업 시너지 제고와 신규사업 진입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며 기업 경영진들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그렇다면 M&A 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삼정KPMG 세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



## Q1 M&A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M&A 시 세금 부문을 가장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세법은 현금소득이 발생하는 사업부 및 양수도는 물론 합병과 분할 역시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가가 아닌 가액으로 불균등하게 자본을 증·감자하거나 불공정합병 등을 통해 이익을 분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주주에게 증여세 및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M&A 세금의 경우 실질소득 없는 세 부담, 시가에 의하지 않는 거래에 따른 불이익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Q2 M&A 세금 부문에서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우선 합병·분할 세제부터 살펴보자면, 세법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합병·분할의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해 비과세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분할을 적격합병·적격분할이라고 하며, 합병·분할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적격합병·적격분할 여부입니다. 사업부 혹은 주식 양수도의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차익 법인세 및 소득세(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도 과세), 양수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실질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세이연 혜택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부 양도 대가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으면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적격현물출자로 보고 과세이연 및 감면 혜택을 부여합니다. 양도차익 법인세와 소득세는 원칙적으

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특수관계인 간에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거래 당사법인은 물론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까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사업양수도의 경우, 양수법인이 취득한 영업권은 적정하게 평가해 취득한 경우에만 세무상 자산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 Q3 특별히 M&A 구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지배구조 및 거래구조 변경 이후 지배주주에 대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M&A를 통해 구조개편 혹은 신규투자를 하는데 성과가 나오기 전에 세금부터 내야 한다면 기업 및 주주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지만 세법에 대한 무지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만큼은 없어야 하는데, 담당자가 경험이 없어 관련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 습니다. M&A를 구상할 때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필수인 이유입니다.



**Tax1본부 장지훈 상무**  
Tel. 02-2112-0961  
E-mail. jihunjang@kr.kpmg.com

<이 칼럼은 2021년 10월 25일 게재된 한경 CFO Insight 'M&A에서 꼭 검토해야 하는 이것' 기고문을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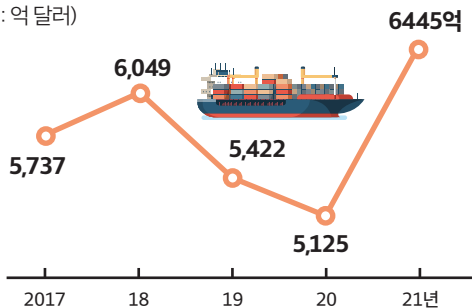
새해에는 어떤 키워드가 이슈일까?  
신년호 <맛있는 경제>에서는  
2022년에 주목해야 할 용어와  
우리나라가 역대 수출액을 기록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들고 왔다.



## 韓 수출, 역대 최대 실적 달성

우리나라 수출이 선복(탑승·적화장소) 부족과 운임 급등 등 수출 물류대란 속에서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1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6445억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연간 수입도 6150억5000만 달러로 무역액은 1조2596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세계 무역 순위는 9년 만에 8위로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출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반도체·조선·자동차 등 주력 수출산업이 제 역할을 해 준 데다 바이오·농수산물·화장품 등 새로운 품목이 약진한 결과다. 이와 함께 수출 품목의 고부가 가치화가 이뤄지며 수출 단가가 증가했다.

연도별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웍플레이션 (whackflation)



‘세계 후려치기’, ‘강타’를 의미하는 ‘whack(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한 신조어로 단적인 물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충격이 가해지는 물가 파동 정도를 의미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어떤 인플레이션보다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웍플레이션으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특히 물가가 1년에 수백 퍼센트 오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초인플레이션, 경기 불황 속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등 기존 경제 용어로는 현재 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헬시플레저 (Healthy pleasure)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제시한 올해 키워드 중 하나로, ‘건강(Health) 관리가 즐거워진다 (Pleasure)’는 의미이다. 즉,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것으로 과거에는 쾌락을 절제하거나 포기하는 방식의 건강관리였다면, 이제는 건강관리에도 즐거움을 부여해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이에 건강 역시 ‘치료’에서 ‘예방’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이동하는 추세다. 헬시플레저 트렌드는 1인 가구 증가,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건강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확산됐다. 이와 함께 SNS 인증과 경험·재미를 중요시하는 MZ세대의 등장도 큰 영향을 미쳤다.



# Happy workplace



## Hello 2022!

어흥! 그래 결심했어!  
임인년, 호랑이띠 삼정인이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은?

22

## Trusted Advisor

신입 컨설턴트 입사를  
환영합니다!  
새내기 컨설턴트 4인방을  
만나다

24

## 삼정인터뷰

FY21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차세대 여성 리더로 가는  
변화의 시작!

26

## 이동규의 두줄칼럼

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28

## 心 Care

당신은 벼랑 끝까지 미루는  
사람?  
더 이상 미루지 않을 나를 위해!

30

## Samjong News

2022년 시무식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  
'Vision 2025' 향한  
도전 의지 다져 外

32



# 어흥! 그래 결심했어! 임인년, 호랑이띠 삼정인이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은?

2022년의 새해가 밝았다. '흑 호랑이 해'인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여 법인 내 호랑이띠를 만났다.  
74년, 86년, 98년생 호랑이띠 삼정인들이 전해온 새해 소망을 들어보자!



## 코로나19 타파!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희망

**김성욱 S.Manager (CM2)**

지난 2021년은 업무로 바쁜 와중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들과 마음 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힘들었음에도,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와 아들에게 감사함을 느낀 한 해였습니다. 밖에 외출할 때마다 불편하게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하는 어린 아들을 보며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 2022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21년까지 이어진 코로나로 다들 몸과 마음이 지치셨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022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현재를 충실히 살며, 가족과 행복한 추억 쌓기!

**백성대 S.Senior (Tax3)**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며 품은 새해 소망은 양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많이 쌓는 것입니다. 영화 <About Time>의 주인공처럼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보석 같은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이기에 현재를 더욱 충실히 살아가려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Slow comes the hour, its passing speed how great"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진지하게 마주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Hello 2022!





### 감사 전하며, 노력하는 삼정인이 되고파!

#### 하상우 Analyst (Deal Advisory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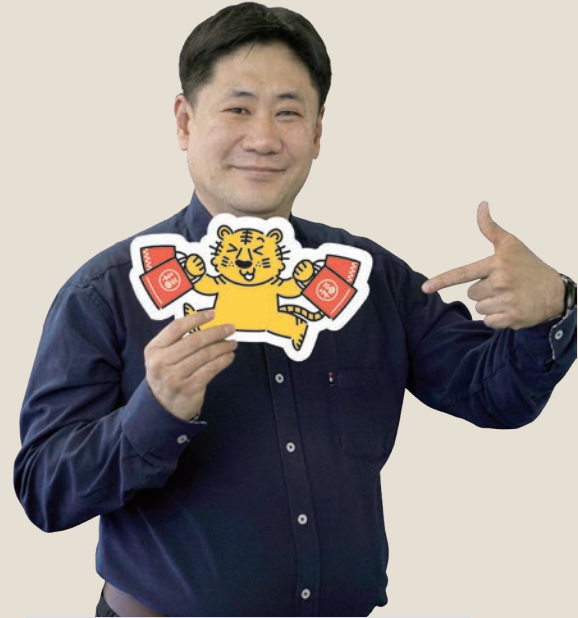
2022년 새해에는 누구보다 소중한 제 가족에게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난 2021년은 소소한 행복도 많았지만, 여러모로 힘든 일이 더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해 제가 CPA에 최종 합격하고, 훌륭한 동기, 선배님들이 가득한 삼정KPMG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저보다 더 기뻐해 주던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이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새해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여행도 가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제가 받은 응원과 축하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충분히 전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신입 회계사로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 도움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

#### 주해정 Consultant (SCG)

2021년은 평생 함께해왔던 학생이라는 신분에 마침표를 찍고, 직장인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삼정KPMG에서의 새 출발을 준비하면서 선배, 동료, 가족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크고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에, 저 역시 2022년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직은 직장 생활 초보로서 서투른 점이 많지만, 2022년에는 업무적 역량 발전을 통해 보다 더 실력 있는 컨설턴트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 새해 소망과 더불어, 삼정KPMG의 모든 분들의 목표도 다 이루어지는 2022년이 되길 희망합니다.



### 친구 같은 아빠로! 그리고 모두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 이성주 이사 (ITS)

2022년 새해 소망이 있다면, 먼저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새로운 시도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어 기술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아들과 힘든 수험생활을 보낸 딸아이가 인생의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함에 있어 든든한 인생 선배, 친구 같은 아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이하여 삼정KPMG 구성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는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신입 컨설턴트 입사를 환영합니다! 새내기 컨설턴트 4인방을 만나다



이지혜  
Consultant (MCS1)



#경험주의자 #근성  
#긍정적인 자세

“모든 경험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고,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배님들과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컨설턴트로서의 생활이 더욱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 근성 있고 긍정적인 자세로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싶다!”

## o 말은 역할 잘 수행하는 컨설턴트로!

저는 스타트업 신사업팀에서 인턴을 할 당시, UX 기획자들과 함께 일을 하며 고객 관점이 아닌 시장 전체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익히고 싶다는 생각으로 컨설팅에 지원하게 됐어요. 그중에서도 관심 있는 금융 분야에서의 컨설턴트를 희망하게 되었고, 많은 선배들로부터 삼성KPMG가 금융 컨설팅에 전통성과 경쟁력이 있다고 들어 지원하게 됐어요. 지원 후 면접 등 채용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삼성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존중하는 문화’를 느낄 수 있어 입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입사 후 가족과 친구들이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된 걸 축하한다며,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어요.

많은 축하와 환영을 받은 만큼 앞으로 제가 말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상품부터 비즈니스 모델까지 금융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이 배우겠습니다. 선배님들로부터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노하우 등을 배워 향후 후배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은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요!



홍주희  
Consultant (MCS2)



#공대\_출신\_컨설턴트  
#No\_Day\_But\_Today

“공대에서 접하기 힘든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게 되어서 정한 키워드! ‘No Day But Today’는 좋아하는 뮤지컬 작품 <Rent>의 슬로건으로 나의 인생 모토! 새로운 도전을 할 때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하겠냐는 이 문구를 되새기며 실행에 옮겨왔고, 삼성KPMG에서도 많은 것을 접하고 싶다!”

## o 인더스트리와 컨설팅 잇는 가교 역할 해낼 것

합격 메일을 받고 정말 집안을 한 바퀴 뛰었던 기억이 나요! 입사 첫날까지도 삼성KPMG에서 일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어요. 다음날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고객사에서 “안녕하세요. KPMG 홍주희입니다!” 하는데 그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제가 읽던 산업 보고서를 만들고, 이끌어 가는 분들과 함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 마음을 간직하며, 선배님들을 따라가기 위해 전투적으로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큰 도움 주신 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성장하여, 향후 후배 컨설턴트들에게도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무엇보다 인더스트리와 컨설팅을 잇는 신뢰의 다리 역할을 하는 컨설턴트로 나아가고 싶어요. 프로젝트에 참여해보니, 산업 이해도가 매우 중요하던 것을 알게 됐어요. 아직 공대생의 사고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빠르게 컨설턴트의 사고로 전환시켜 공대 지식을 베이스로 제조, 물류 등 인더스트리 전문 삼성KPMG를 대표하는 컨설턴트가 되겠습니다.

삼정KPMG는 신입 컨설턴트 47명을 새 가족으로 맞이했다.

신입 컨설턴트들은 지난 1월 3일부터 6일까지, 온라인 실시간 교육을 통해 ‘신입 컨설턴트 온보딩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삼정인으로서 소속감 및 로열티를 제고하고, 전문가로서 필요한 기본 소양을 배우며

법인의 비전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Consulting 본부별

대표 신입 컨설턴트를 만나, 본인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소개하고, 법인에서 이루고 싶은 남다른 포부에 대해 들어본다.



**김다은**  
Consultant  
(Digital Tech)



**#마케팅\_석사**  
**#적극적인\_자세 #맛집탐방러**

“Digital Transformation에 관심이 있어 경영 마케팅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그리고 지난해 여름부터 삼정KPMG에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함께 일했던 컨설턴트 선생님을 보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 끝으로 프로 맛집탐방러로서 맛집과 예쁜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o Digital Tech 전문 컨설턴트로 성장에 성장!**

저는 대학원 졸업 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하면서 개인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점과 고객사에게 미래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와 컨설턴트로 취업을 희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기회가 닿아, 삼정KPMG Digital Tech본부에서 지난해 7월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됐어요. 2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제 업무를 경험해보고, 많은 선배 컨설턴트분들과 함께 일하며 자연스럽게 삼정KPMG에서 근무하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어요. 그러던 중 공채 소식을 접하게 됐고, 공식적으로 삼정인이 되었어요!

원하던 삼정인이 된 만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려고 합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는 마인드로 오래오래 삼정인으로 일하고 싶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극복하기 위해 늘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Digital Tech 분야 전문 삼정인으로 성장하고 싶고, 꼭 본부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 성장하고 공부하고, 배워가겠습니다. 파이팅!



**진남군**  
Consultant (SC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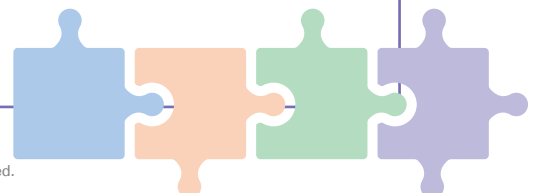
**#카멜레온 #열정**  
**#강한\_친화력**

“3살 때부터 아버지 손에 이끌려 대만과 중국, 홍콩 등 다양한 해외를 경험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카멜레온처럼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 또한, 매사에 열정적인 자세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강한 친화력으로 빠르게 팀에 적응해 가고 싶다.”

**o 걱정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운다는 마음으로!**

“성장을 이끌어 주는 조직 문화가 잘 형성된 곳!” 이는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이 삼정KPMG에 입사하신 후 경험하고, 느낀 점이었어요. 저도 서로의 성장을 돕는 곳에서 앞으로의 커리어를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삼정KPMG 입사를 희망하게 됐어요. 입사 후, 저 역시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많은 인사이트와 가르침을 받아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아직 저는 신입이지만, 업무를 대할 때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헤쳐 나가고 싶어요. 부족하고, 배울 점이 많아 조금 걱정되지만, ‘걱정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배우자!’라는 열정적인 마인드로 일하고 싶어요. 이러한 노력으로 고객은 물론, 선배님들과 향후 후배들에게 ‘The Clear Choice’ 할 수 있는 삼정인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최고의 선배님들과 함께 일하며, 선배님들이 지닌 장점과 문제 해결 방식을 제 것으로 만들어 팀에 보탬이 되는 삼정인이 될게요!





# FY21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차세대 여성 리더로 가는 변화의 시작!

삼정KPMG는 지난해 11월 26일, 12월 3일, 12월 10일, 3회에 걸쳐 ‘FY21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이뤄갈 차세대 여성 리더들이 어떤 교육을 듣고, 긍정의 변화를 이끌었는지 교육 현장을 스케치해 본다. 이와 함께 앞으로의 비전과 목표도 함께 들여보려 한다.



4회 차에 접어든 ‘FY21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에서는 Manager, Senior Manager, Director 직급의 법인 여성 임직원을 대상으로 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된 22명이 참여했으며 ▲Leading Self, ▲Leading People, ▲Leading Change를 주제로 3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강점을 이해하고,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법인 내 파트너들과 ‘고객 리딩을 위한 비즈니스’에 대한 패널 토의 등도 진행했다. 또한,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리더들에게 수료증을 전하는 시간도 가졌다.

##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어땠나요?”

- ‘여성’이란 틀에서 벗어난 ‘진정한 리더십’을 깨달은!

삼정KPMG는 여성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부족한 점이 없는 곳이지만, 그럼에도 이 사회에서 여성 직장인만이 갖고 있는 어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고민을 해오던 차에,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타 본부 동료, 선배님들과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어요. 무엇보다 파트너분들과 함께한 토의

시간은 굉장히 뜻깊었어요. 특히 삼정 KPMG에서의 ‘여성’ 리더십보다는 삼정KPMG에서의 ‘리더십’에 대해 말씀해주신 신경철 부대표님의 말씀이 감명 깊었습니다. 스스로 ‘여성’이라는 틀에 갇혀 있던 저를 깨달았고, ‘Just 삼정KPMG의 한 리더십’으로 어떤 사고와 어떤 자기계발을 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성 후배들에게 좋은 사례가 되도록 커리어를 잘 쌓아가고 싶다는 의지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었어요.

## 삼정KPMG의 진정한 리더십



손진영  
S.Manager (CM1)

## 선한 영향력으로 가득한 리더



장유진  
S.Manager (Tax6)

### ○ 나를 돌아보고 미래를 재정비할 수 있었던 시간!

여러 교육 과정 중 저는 'Befriending Conflict' 세션이 가장 인상에 남는 데요. 그동안 갈등은 두렵고, 무섭고, 피해야만 하는 대상으로만 인식했지만, 갈등조차도 세션 제목과 같이 'Befriending' 하도록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나 자신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갈등 상황도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엇보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미래를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한 영향력'이 가득한 리더십을 발휘해 가고 싶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열정, 감동,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며 서로 윈-윈 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 ○ 여성 리더들과 든든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기회를 통해 법인에서 여성 리더들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매니저로서, 여성으로서 고민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다른 동료, 선배들이 많다는 점을 알게 됐어요. 이처럼 타 본부에서 근무 중인 다양한 여성 리더들과의 교류로 따뜻하고 든든한 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장점 진단, 스트레스 관리 등 다양한 세션을 통해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들을 수 있어 좋았으며, 팀 논의와 사례 스터디를 통해 이론에 그치는 강의가 아닌 강의 내용을 실제 적용할 수 있어 유익했어요. 앞으로 저는 '담고 싶은 리더'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만 잘하는 리더가 아닌, 부드럽고 따뜻하게 인간적으로 구성원을 챙기는 엄마 같은 리더가 되고 싶어요.

## 누구라도 담고 싶은 리더



이지혜  
Manager  
(Deal Advisory3)

##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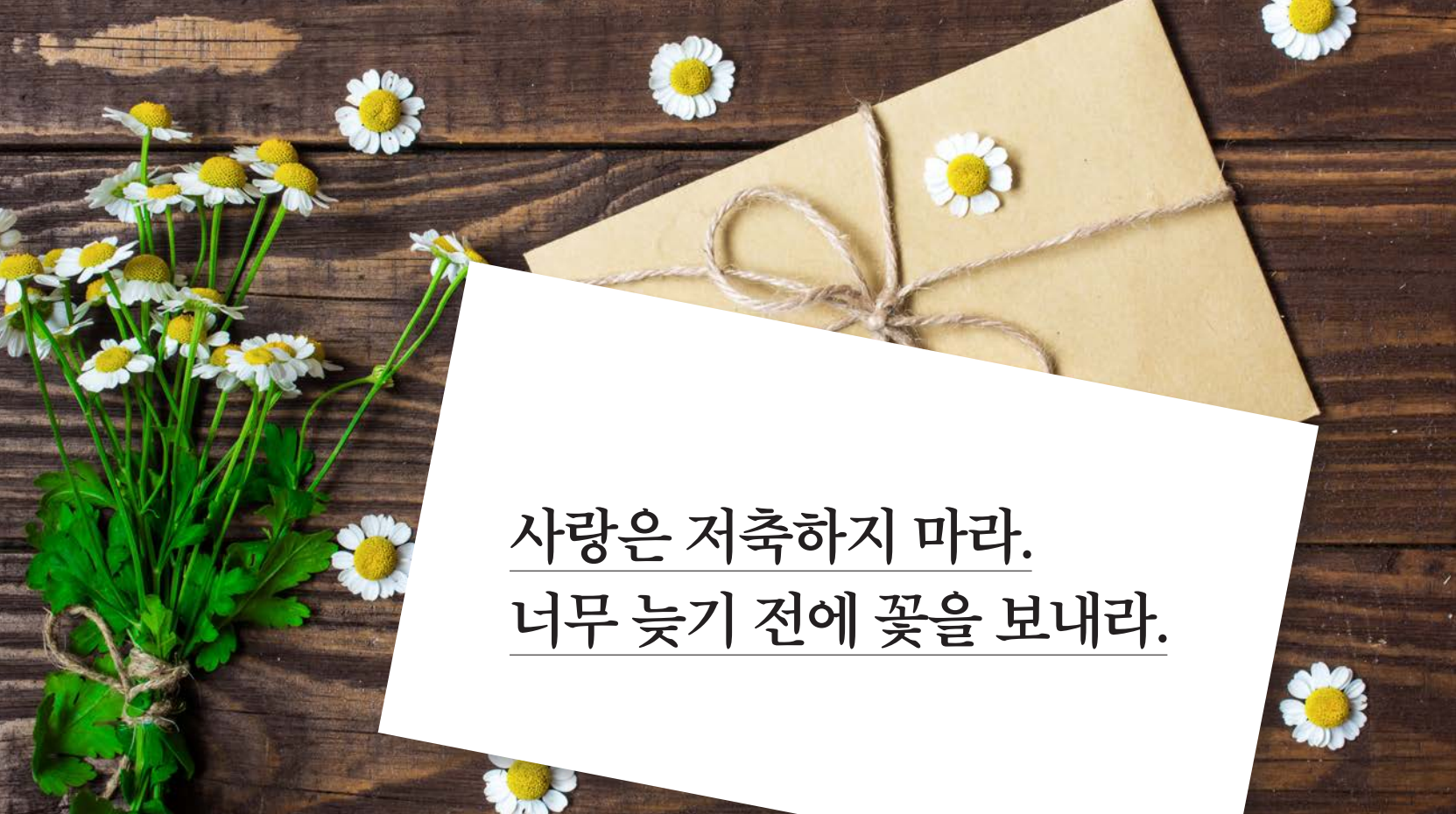


김소희  
S.Manager  
(Digital Tech)

### ○ 단점이 강점으로! 생각의 전환을 이끈 프로그램

나를 바라보는 것,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갈등에 친숙해지는 것, 이번 프로그램에서 다룬 모든 세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동안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세션은 'Finding Strengths'였는데요, 평소에 단점으로 여겨온 제 모습이 강점으로 발견됐을 때 많이 놀랐어요. 새롭게 찾은 제 강점을 인지하고, 개발함으로써 향후 법인 생활에 잘 적용해 가려 해요. 또한,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이 나의 기준으로 상대의 모습을 판단하고, 반응을 기대하며 발생함을 깨달았고, 앞으로 상대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 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리더십을 추구하며, 이번 교육에서 배운 것을 잘 활용해 가고 싶어요. 또, 언젠가는 이 프로그램에 리더로서 참여할 날도 기대해봅니다!





사랑은 저축하지 마라.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 Carpe Diem, 현재를 즐겨라!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차이는 매우 흥미롭다. 특히 기쁨과 슬픔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같겠지만 드러내어 표현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다. 대표적인 것이 장례식 문화다. 서구로 이민 갔던 사람들이 남편 장례식에서 미망인이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걸 보고 이상한 오해를 했던 경험들은 이런 차이를 몰랐기 때문이다. 효(孝)가 핵심가치인 우리 사회에선 부모 상에 삼베옷을 입고 구슬픈 곡(哭)을 하지 않으면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다. 이에 반해 서양인의 입장은 슬픔이란 개인적 문제라고 보기에 아무리 슬퍼도 자신의 눈물을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시간 개념도 다르다. 서양이 선형이라면 동양은 원형이다. 서양이 단면적(monochronic)이라면 동양은 다면적(polychronic)이다. 원형적 시각에서 볼 때 시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돌고 돌아 제자리로 오기에 조급할 것이 없다.

따지고 보면 오늘은 내일의 어제다. 어떤 이는 과거란 ‘오래된 미래’라고도 한다. 마포 대포집 벽에 붙어있던 글귀도 인상적이다. “청년은 미래를 이야기하고, 중년은 현재를 이야기하며, 노년은 왕년을 이야기한다.” 일찍이 동양학 최고봉 노자는 《도덕경》에서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고, 평안한 사람은 현재에 산다”고 설파하였다.

이것은 로마의 서사시인 호라티우스(Horatius)가 외친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도 일맥상통하는 성찰이다. 당시 황제였던 카이사르는 자신이 죽은 뒤 황제의 자리를 조카 옥타비아누스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지만, 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옥타비아누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드디어 로마엔 평화가 찾아왔다. 이때 호라티우스가 자신의 시집에 쓴 표현이 바로 ‘카르페 디엠’이다. 이는 그동안 끔찍한 전쟁을 겪으며 슬픔과 공포에 떨었던 로마 시민들이 이젠 마음 편히 쉬어도 된다는 뜻이었다. “Carpe diem, quam minimum credula postero(오늘을 열심히 살아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가 그 원문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 라틴어 ‘Carpe Diem’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89년 개봉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Dead Poet’s Society)>에서 로빈 윌리엄스 (키팅 선생 역)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외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 메시지는 당시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 외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구절도 같은 맥락이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결국 이러한 세계적인 고수들이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시간이라는 점이다. 영어로

‘현재(present)’가 선물과 같은 단어임을 상기해보라.

Now and Here!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now)이고,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여기(her)다. 두 단어를 합치면 ‘nowhere’가 된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길인 것이다.

지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오늘 사랑한다고 말하라.

너무 늦기 전에 꽃을 보내라!

### 저자 소개



#### 이동규 교수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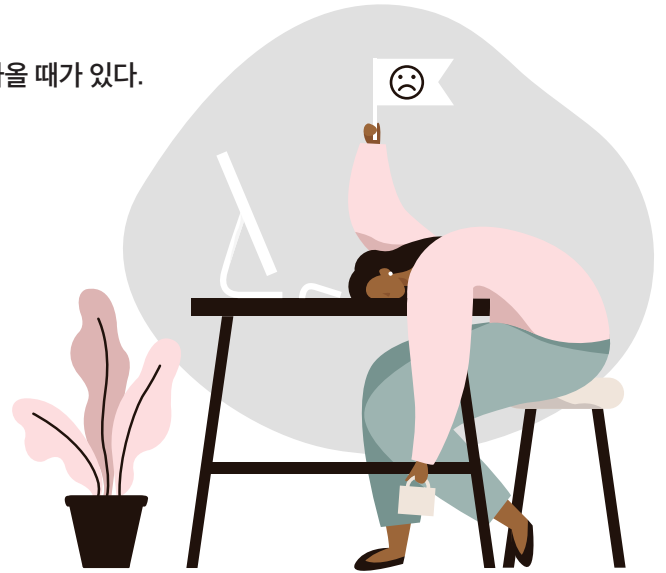
이동규 교수는 국내 거의 모든 종류의 조직을 진단·평가해온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이며, 스타급 강사로도 유명하다. 특히 신작 《생각의 차이가 일류를 만든다》(21세기북스, 9쇄 돌파)는 각종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교수의 《두줄칼럼》은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조직문화, 혁신 등 삶과 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불과 ‘두 줄’로 풀어낸 국내 최초의 초미니칼럼(부제: Think Audition)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과 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생각 근육을 키우고 마음의 울림을 느끼게 하는 독창적인 언어 플랫폼이다.



# 당신은 벼랑 끝까지 미루는 사람? 더 이상 미루지 않을 나를 위해!

혹시,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쌓아 두는 스타일인가?  
미루고 미루다 보면 결국 쌓인 일이 더욱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벼랑 끝까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일을 미루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미루기(꾸물거림, Procrastination)에 대한 심리학 연구가 꽤 누적됐을 정도로 미루는 것에 다양한 심리학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일이나 공부가 하기 싫어 미루는 것은 만국 공통인 것 같다. 단순히 하기 싫어서 미루는 습관이 아니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미루기'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왜 일을 미루는 것일까? 일을 덜 미루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 ○ 일을 미루는 이유

미루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 이 일을 미루고 싶은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완벽주의 성향이 미루기와 관련이 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도 한다. 일을 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를 찾거나,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예 하지 않으려는 것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일 수 있다. 완

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완벽한 상태가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다. 그러다 보니 통제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일은 피하거나 미루게 된다. 게을러서 아니라 반드시 실수 없이 잘 해내고 싶고, 그러다 보니 부담감에 압도되어 '아직 시작하기에 내가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 아예 일을 시작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세부사항에 몰두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의 사람들은 본격적 업무에 앞서 나만의 세팅(필기구 정리, 모니터 화면 분할, 줄 간격 등)을 갖추는 데 시간을 할애하기 잘하는 일만 하려고 함 계획한 것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아예 포기함 열 번 중 아홉 번은 내가 한 일이 만족스럽지 않음 현재 자신의 상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는 완벽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특성이 있다.

둘째, 일을 완료하기 전 '막판'의 스틸, 긴장감을 자발적으로 활용하는 '능동적인 미루기'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유로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마감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가장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이 있는 경우가 많다. 능동적 미루기를 하는 사람들은 미루기 행위 자체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편이나, '좀 늦어도 설마 내가 망하기야겠어'라고 생각하는 등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면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준비 시간은 충분한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여유 시간은 확보되어있는지를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인지해야 한다. 스틸

을 즐기는 자신은 괜찮을지 몰라도 팀원들이나 협력자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니 다소 엄격하게 스스로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존적, 회피성 성향으로 일을 미루기도 한다. 책임으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일에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을 경우, 혹은 내가 이 일을 완수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미루게 된다. 이 케이스의 사람들은 '지금 하기 싫으니까 나중에 생각하자'와 같이 의도적으로 미룬다기보다는 **☑** 다른 일들이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다 **☑** 나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사안들이어서 일단 보류해뒀다 **☑** 실질적인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미룬다.

넷째, 우울, 무기력감을 느끼면 일을 미루게 된다.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우울한 감정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다면 집중력 및 주의력, 단기기억력이 저하된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단순히 업무와 할 일만 미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상적인 일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울 것이다. 가능하다면 멀티태스킹을 멈추고 한 가지 일에만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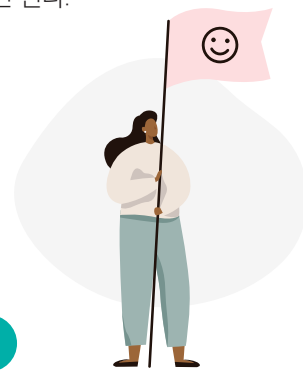
**○ 일을 미루지 않으려면**

습관적으로 일을 미루고 있다면 일을 미루는 나의 행동 연결고리를 수정해야 한다. 일을 미루고 싶을 때 사람마다 '딴짓'으로 새겨 되는 포인트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크게 관련 없는 인터넷 창을 이것저것 돌아가며 열어보다 일을 미루게 되고, 또 세련된 템플릿을 만들다가 정작 내용은 생각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방해되는 결정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연결고리를 끊고 일에 도움이 되는 대안 행동으로 바꿔보자.



또, 해야 할 일을 세부적, 단계적으로 나누고, 업무 시간도 25분 일하고 5분 쉬는 것으로 쪼개 보자. 너무 집중이 어려운 날에는 단순한 업무부터 시작하고, 뭐라도 하는 것에 의의를 두며 해보는 것이다. 하다 보면 또 몰입할 수 있는 자신을 잘 알지 않는가. 일하기에 '완벽한 조건'은 없다. 더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한다'는 환상을 버리자. 전제조건을 자꾸 찾지 말고 뭐라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원래 일을 미루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 어제의 내가 일을 미뤘다고 계속해서 자책하지 말자. 지금의 내가 한 글자라도 쓰고,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면 된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에서 상담, 위기 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 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 2022년 시무식 유튜브 라이브로 개최... 'Vision 2025' 향한 도전 의지 다져

삼정KPMG가 임인년(壬寅年) 시무식을 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이번 시무식에서는 'Vision 2020'의 성공적인 실현을 돌아보고, 'Vision 2025'를 향한 도전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시무식 현장에서 김교태 회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모두 긍정의 마음으로 함께 도전한 결과 'Vision 2020' 달성이라는 좋은 성과를 이뤘다. 함께 노력해준 결과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2022년 'People First'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고객 만족을 위해서 먼저 우리 직원을 만족시키도록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고객과 구성원을 존중하며, 임무 앞에 스스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나아가자”라며, “2022년에도 한마음을 다해 'Vision 2025'를 향한 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남북경협최고경영자 과정 'NK비즈포럼' 6기 입학식 개최

지난 2021년 12월 9일, 북한·통일 분야의 최고경영자 과정인 'NK비즈포럼' 6기 입학식이 진행됐다. 'NK비즈포럼'은 대북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로서, 기업들의 남북경협 및 대북사업을 지원하는 삼정KPMG와 중앙일보가 함께하는 남북경협최고경영자 과정이다. 6기 입학식에는 기업 CEO와 임원, 변호사, 의사, 각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오는 3월 4일까지 경제·인문 및 통일 분야강좌 및 유흥준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등의 강의를 수강한다.

\*Contact: 조진희 이사 jinheecho@kr.kpmg.com





### ‘한경·삼성KPMG 디지털금융 포럼 2021’ 개최

삼성KPMG와 한국경제신문사가 2021년 12월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한경·삼성KPMG 디지털금융포럼 2021’을 개최했다. 포럼은 ‘금융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온·오프라인 동시 행사로 개최됐다.

삼성KPMG 디지털본부장 조재박 전무가 ‘빅테크의 금융 진출과 시사점’을 주제로, 빅테크의 금융 진출, 마이데이터 도입 및 향후 규제 동향, 금융사 시사점 등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정유신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 신한은행의 김철기 디지털혁신단장이 해당 주제에 대한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다음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의 미래’를 주제로,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박수용 교수가 강연을 진행했으며, 발표 이후 삼성KPMG Digital본부 황태영 상무, 김연장법률사무소 이일석 변호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전요섭 기획행정실장, 한국블록체인협회 설재근 수석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관련 이슈에 대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삼성KPMG 인사조직컨설팅 리더 박형철 부대표가 ‘금융산업 변화의 핵심: 새로운 인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DBS Bank Korea의 김수진 SVP(Head of HR)와 Deep Search의 김재운 CEO, 네이버 파이낸셜의 곽상호 Strategy & 파트리더가 패널토론을 통해 인재관리 이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Contact: 박혜경 이사 hyekyungpark@kr.kpmg.com

### ‘2021 KPMG Global Cyber Day’ 행사 열려



KPMG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서울 선유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전략을 안내하는 ‘2021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KPMG Global Cyber Day)’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삼성KPMG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 대책을 안내했으며, 온라인 게임 및 SNS 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한편 ‘KPMG 글로벌 사이버 데이’는 2017년부터 진행된 KPMG 글로벌의 공식 행사로, 매년 전 세계 학생들에게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 ‘중견기업 대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웨비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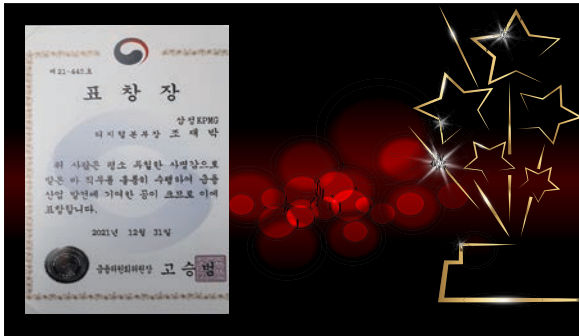
삼정KPMG는 2021년 12월 15~16일 ‘Microsoft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전환 수행 전략 및 방안’을 주제로 ‘중견기업 대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웨비나 전문 방송인 전자신문 allshowTV와 토크아이티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됐으며, 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추진 전략 제시와 함께 Microsoft 플랫폼 기반 디지털 전환 사례를 제공했다. 한편, 이날 웨비나에서는 삼정KPMG 디지털 전환 전문 컨설턴트 김정원 상무, 조용호 이사가 발표를 진행했다.

\*Contact: 이혜주 부장 hyeजूlee@kr.kpmg.com



### ‘삼정포럼’,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 주제로 열려

삼정KPMG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역삼동 삼정KPMG 본사에서 삼정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라이프스퀘어 최형욱 대표가 강연자로 나서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최 대표는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 소개와 관련 산업 전망, 비즈니스별 메타버스·가상경제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삼정포럼은 삼정KPMG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 다양한 명사의 강연을 진행해 그들만의 차별화된 인사이트를 전하는 포럼이다.



## 디지털본부장 조재박 전무,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지난 2021년 12월 31일, 삼성KPMG 디지털본부장 조재박 전무가 금융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조재박 전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디지털 관련 발제를 했으며, 금융 규제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심사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해왔다.

조재박 전무는 "수상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회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금융 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며 표창 수상 소감을 밝혔다.



## 취약계층 노인 위한 '곡물 온열팩 만들기' 봉사

삼성KPMG는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기부하는 '곡물 온열팩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 및 가족 88명은 곡물 온열팩의 겉싸개를 프랑스 자수로 꾸며 총 100개의 온열팩을 완성해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노미란 Associate(Tax1)는 "나이가 드실수록 추위도 많이 타시고, 외로움도 깊어진다고 들었다. 우리가 만든 온열팩이 조금이나마 따스함을 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으로 전해도 될 수 없었지만, 여건이 되면 다음에는 대면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봉사 소감을 전했다.

### INTRODUCE

### 신규 영입 파트너를 소개합니다!

#### Deal Advisory4본부 김수진 상무 영입

삼성KPMG가 2021년 11월 22일 자로 Deal Advisory4본부에 김수진 상무를 영입했다. 김수진 상무는 증권사에서 국내 및 해외 대체투자 및 기업 금융 투자를 수행했으며, 회계법인에서 M&A 및 인프라 투자 관련 자문 평가, 사업 타당성 검토 등 다양한 자문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로 Deal Advisory4본부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수진 상무는 "성장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삼성KPMG Deal Advisory본부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그동안 안팎으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KPMG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어 'Vision 2025' 달성에 기여하겠다"고 입사 소감을 전했다.



김수진 상무 (Deal Advisory4본부)

#### 경력

- 하나금융투자 대체투자본부 (2016년 2월~2021년 9월)
- 삼성KPMG Deal Advisory4본부 (2011년 4월~2016년 2월)
- 삼일회계법인 BU2 FAS본부 (2007년 10월~2011년 3월)





##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 삼정KPMG 아카데미



삼정KPMG 아카데미  
미리보기



정규 교육 과정

이슈 브리핑

비즈니스 리포트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2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